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환경탐험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04월 09일(수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타디움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서*연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신*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1.<침묵의 봄>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 *연 : 한 미국인 부부가 베네수엘라로 이주한 후 바퀴벌레가 많아서 살충제를 뿌린 이야기였습니다. 부부는 아이와 강아지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킨 후 살충제를 사용했고, 다 사용한 후에는 마룻바닥까지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후 강아지는 토하고 발작을 일으킨 후 죽었고, 아이 역시 토하고 발작을 일으킨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건강하던 아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농약 업체나 과학계에서는 당시 이를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사용자의 부주의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에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농약과 화학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이 실제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 *영 : 수입된 나무에 붙어 들어온 녹색 장수풍뎅이를 제거하기 위해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례가 나온다. 하지만 이 살충제는 풍뎅이뿐만 아니라 사람, 가축, 야생동물, 그리고 토양과 자연환경 전체에 큰 피해를 주었다. 풍뎅이를 없애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잃었으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원 : ‘그렇게 원시적 수준의 과학이 현대적이고 끔찍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이다. 책에서는 계속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한 화학물질이 동물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상세히 담아 전한다.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직설적으로 던지는 마지막 말은 보다 큰 위험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 인간이 곤충을 죽이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고 인간도 자연이기에 안전

하지 않다는 사실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는 말하기에 인상적이다.

2. 카슨이 말하는 "자연의 균형"이란 무엇인가?

: 현재 모습 그대로 유지되는 '불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유동적이고 계속 변화하며 조절과 조정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 했다. 인간 역시 자연이 이루는 균형의 일부분이지만, 인간이 자의적으로 이런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인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문제가 생긴다.

3. 카슨은 농약 사용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 농약은 단기적으로 해충을 죽이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토양, 물, 공기, 그리고 생태계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농약이 자연 환경과 인간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DDT 같은 농약의 경우 자연 속의 다양한 생물들에게 축적되어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결국은 인간에게도 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슨은 농약에 대한 정부와 과학계의 지나친 신뢰와 무분별한 사용을 비판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농업 방식(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더 많은 천적을 푸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4. 당시 사람들은 카슨의 경고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농약 제조업체와 일부 과학자들은 그녀의 주장을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카슨이 농약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서 위험성을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하며, 농업계는 농약이 농업 생산성에 필수적이라며 카슨의 경고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카슨의 경고가 단순히 과학적 사실에 대한 논란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들이 경고를 간과하고 오히려 산업적 이익이나 기존의 과학적 권위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느리게 확산되었고, 과학적 사실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다.

5. <침묵의 봄>이 발표된 후,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카슨의 경고가 단순히 농약 문제로 그친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DDT와 같은 농약은 사용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고 농업 및 산업계에서 더 안전한 대체제를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또 여러 국가에서 환경 관련 법과 규제의 변화를 촉발하기도 하였으며, 환경 운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책 하나로 사람들이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6.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연 : 단기적인 이익이 환경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의 즉각적인 편리함이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며,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눈에 띄지않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해 개인

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을 실감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환경 문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게 되면 이를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환경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환경 문제에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정책적 차원의 노력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영 : 사람들은 환경문제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고는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외면하거나 ‘언젠가 누군가가, 다음 세대가 해결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환경오염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 *원 : 환경이 한 순간에 모조리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의 악영향으로 즉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보다 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시대가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연까지 신경쓸 새가 없다. 본인의 안위가 중요하지, 몇 백년 뒤에 망가질 자연을 신경쓰는 이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7. 독성 물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 *연 : 정부는 독성 물질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 물질의 사용을 제한해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는 환경 교육을 통해 독성 물질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람들이 올바른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체 기술을 채택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개인은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영 : 정부는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 더 철저히 검사하고, 안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독성 물질 사용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지 말고 환경을 고려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도 독성 물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용할 때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 : 정부에서 약품업체들에게 성분 약화나 성분 변경, 시중 판매 약품 수를 줄이는 등의 법을 만들고, 또한 농부들이 친환경 약품을 쓸 의향이 있어도 시중 판매되는 친환경 제품은 가격대가 높기에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농부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화학약품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침묵의 봄>에 나오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다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내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8.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나 농약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

: 농약과 화학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농약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기

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화학 농약들이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검사와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많은 농업에서 화학 농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업을 더 촉진하거나 화학 농약의 대체 연구와 개발(식물 기반 농약, 미생물 방제 기술 등)이 필요하며, 농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대체 농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9.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연 :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올바른 재활용을 함으로써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전거 타기 등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소비 습관을 바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영 :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친환경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친환경 제품이나 식품을 구매할 때 혜택이나 할인을 제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에 쉽게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 *원 : 도보 이용, 에프킬라와 같은 살충제 과한 사용 금지, 일회용품 사용 자제, 옷 오래 입기, 세제나 샴푸와 같은 제품 과다 사용 금지 등으로 소소한 환경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10. 책을 읽고 느낀 점

- *연 : 책을 읽고 나서 살충제나 농약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깊이 알게 되었고, 먹이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까지 피해가 오는 사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약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가 먹는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간간히 보았던 소독차의 성분도 살충제와 농약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쉽게 환경에 축적된다는 것과 그 피해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화학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영 : 평소에 환경에 대해 생각은 해왔지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깊이 고민해본 적은 없었다. 침묵의 봄은 내용이 어렵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책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이 책은 인간의 무분별한 화학물질 사용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결국 그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꾸준히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 *원 : 자연환경 파괴에 대해 이렇게 상세히 이야기하는 책은 처음 읽었다. 책이 나온 지도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

고 있기 때문인 것이 실감이 나기도 하였다. 처음 제목을 보았을 때 왜 침묵의 봄인지 의미를 잘 몰랐다. 하지만 곧 그것이 화학물질로 인한 새들의 죽음의 결과라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현 시대에 일시적으로 편하자고 무자비하게 약품을 뿌리는 것이 결국 미래 세대의 편치 못한 삶을 불러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예상컨대 발간 이후부터 자연이 망할 때까지 회자가 될 것이다.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금의 세상은 자연을 놔주기엔 어려워 보인다.

11. 활동 사진

2025년 04월 09일

참가자대표 : 서*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환경탐험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04월 30일(수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타디움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서*연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신*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시간과 물에 대하여 (안드리 스나이르 마그나손)

1. 빙하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 *연 : 빙하가 사라지는 건 단지 기후변화의 상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다. 빙하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많은 강의 수원지이기도 하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변하게 된다. 결국 인간도 그 안에서 영향을 받는다.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듯, 빙하의 소멸은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는 일이기도 하다.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온 얼음은 마치 우리의 역사처럼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 삶의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다.
- *영 :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 쓰나미, 무더위 같은 자연재해도 더 자주 생기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 : 빙하가 사라지면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어 대홍수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잃어 기후난민이 대거 생길 것이다. 그 뒤에는 물이 말라 강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농업에 필요한 물까지 사라져 식량 생산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식수 등도 모조리 사라지는 것이다. 가난한 국가는 이와 같은 피해를 정통으로 받을 것이고 이는 곧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우리는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 *연 : 지금 우리는 자연을 하나의 자원이나 소비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원래 인간은 자연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저자는 자연을 시간과 감정, 기억으로 바라본다. 즉, 자연은 인간의 삶과 정서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편리를 위한 수단으로 바꿔버렸다.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우리가 자연과 맺어야 할 관계가 단순한 이용이 아닌, 공존과 존중이어야 한다는 걸 더 분명히 느꼈다.
- *영 : 이상적인 관계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이 인간에

게 훼손당하고 있고, 인간은 환경 문제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나중에 고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

- *원 : 자연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맙고 미안한 존재이다. 우리는 자연에게 이 반대일 것이다.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우리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해 왔다. 때문에 자연과 우리의 관계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쪽은 마음껏 이용하고, 한 쪽은 모조리 내어주는 아주 일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3. 빙하와 같은 자연의 변화가 인간의 문화와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 *연 : 빙하는 단지 물리적인 얼음 덩어리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온 문화의 일부이자 역사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빙하가 신화 속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자연이 변화하면 그것과 함께 얽혀 있던 이야기들도 사라진다. 저자가 '기억을 잃는 것과 같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를 형성해 온 살아 있는 요소다.
- *영 : 빙하와 같이 자연의 변화는 인간들의 생활방식을 다르게 했다. 예를 들면 빙하기 시기에 는 지구가 추워져서 많은 동물들이 멸종하였고 인간들은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살아가야 했다. 이처럼 갑자기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 *원 : 자연의 변화는 우리의 역사를 사라지게 만든다. 언젠가 빙하가 녹아 후세대가 빙하를 모르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자연의 변화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손쉽게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의 변화는 인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스위스 주민들은 알프스 빙하가 줄어들어 자신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4. 우리가 지금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 *연 : 지금의 우리는 자연을 편리함과 효율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결국 자연도, 인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저자는 인간이 사고하는 시간의 단위를 너무 짧게 본다고 말한다. 하루, 한 달, 몇 년 단위가 아닌 수백 년, 수천 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 역시 그 말에 공감한다. 우리가 지금 자연을 대하는 방식은 매우 즉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제는 자연을 존중하고, 긴 호흡으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때다.
- *영 : 우리는 자연을 마치 공기처럼 당연히 있는 존재로 여긴다. 하지만 자연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잘 모른다. 그 이유는 자연의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당장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연에 관심을 갖고 환경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원 : 자연을 이용할 생각만 하지 말고, 자연과 최대한 공생하며 살아가려 노력해야 한다. 분리수거 등 쓰레기 배출 자제 등 환경을 생각하는 행동이 보이는 노력을 포함하여 자연이

인간만큼이나 소중한 중요한 것이라는 가치관부터 정비하는 인식에 대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5. 왜 저자는 '물'이라는 요소에 그렇게 많은 의미를 담았는가?

- *연 : 물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끝이며, 시간을 상징한다. 저자에게 물은 단순히 자연 속 한 요소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다. 물은 형태가 없어 어떤 그릇에든 담기고, 흐르며, 기억을 품는다. 저자는 물을 통해 인간의 삶과 자연의 흐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쩌면 '물'이라는 상징이야말로 우리가 지구라는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 *영 : 물이 시간처럼 계속 흐르면서 자연과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잘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에 많은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한다. 물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소중한 것이면서, 지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다.
- *원 : 물은 거의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본이며 세상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물로 인하여 인간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으며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은 옛날부터 처음, 죽음 등 여러 상징을 가졌었다. 때문에 이토록 신성한 물에 대하여 인간이 물, 즉 자연에 숭고하고 책임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전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물을 단순한 물이 아닌 여러 가치를 지닌 것이기에 많은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6. 이 책은 환경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내용이다,

이런 글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연 :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환경 문제는 단순히 과학적인 통계나 경고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다. 이 책은 독자가 자연을 감각적으로 다시 느끼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게 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울림을 준다. 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서사로 기후 위기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좋은 예시였다.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을 서서히 바꾸는 방식이 더 오래 지속되는 힘을 가진다고 느꼈다.
- *영 :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환경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각자가 환경을 의식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친구나 가족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이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믿고있다.
- *원 : 환경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책들은 아주 많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본인의 이야기와 시의 언어로 환경에 대해 적절하게 녹여놓은 책은 흔치 않을 것이다. 때문에 여느 딱딱한 책보다 이 책을 읽었을 때 환경 문제에 대해 더 쉽고 생생하게 깊은 이해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책이 독자에게 더욱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7. 언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기억이나 감정을 어떻게 남길 수 있었을까?

- *연 : 언어가 없었다 해도, 인간은 분명 감정과 기억을 남기기 위해 다른 방식들을 찾아냈을 것이다. 몸짓, 표정, 그림, 노래, 리듬, 심지어 눈빛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그것이다. 실제로 인류는 문자가 생기기 전부터 벽화나 손자국 같은 흔적을 남기며 삶을 기록해 왔다. 저자가 말한 '언어의 확장'에는 이런 비언어적 소통 방식도 포함된다고 느꼈다. 언어는 물론 강력한 도구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관계의 깊이는 말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언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자연과 더 긴밀하게, 더 감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 *영 : 언어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몸짓, 표정, 그림을 통해 감정과 기억을 남겼을거 같다. 몸짓과 표정은 마음속 감정을 직접 표현할 수 있고, 그림은 느낀 것을 오래도록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언어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기억을 나누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을것이다.
- *원 : 기억이나 감정을 그림으로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아주 옛날에도 원시인들은 동굴에 인간들과 동물 등 많은 벽화를 남겨 그것들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한 표정과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말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웃는 표정, 화난 표정, 슬픈 표정 등으로 웬만한 의사소통은 가능했으리라 본다.

8. 저자에게 자연은 고향이자 상처이며 때로는 질문이다, 나에게 자연은 어떤 존재인가?

- *연 : 나에게 자연은 '대화 상대' 같다. 내가 조용히 있을 때마다 말을 걸어오고, 때로는 답 없이 질문만 던지기도 한다. 바람, 나무, 물소리 속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인간의 욕심이 만든 풍경에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자연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기도 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자연을 그냥 풍경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저자의 말처럼, 자연은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존재다.
- *영 : 어릴 때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다. 풀을 이용해 놀기도 하고, 자연에서 뛰어놀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때 자연은 우리에게 놀이가 되어 주었고, 아무 조건 없이 많은 것을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 같다.
- *원 : 나에게 자연은 쉽터다. 지금은 주변의 자연보다 인간이 만든 것이 보기 쉬운 세상이다. 이런 회색빛 세상에서 지내다가 가끔 시골이나 산을 갈 때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잠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널리 뻗은 초록색을 볼 때 마음에 안정감이 들기도 한다. 때문에 자연은 내가 마음을 푹 놓을 수 있고, 대가 없이 맑은 공기와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고마운 쉽터이다.

9. 기술이 발전하면 기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

- *연 : 기술은 중요한 도구지만, 그것만으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기술에만 의존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태도, 인식,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감각의 무더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시간의 스케일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며, 기억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기술은 그 변화의 '수단'일 뿐, '해결'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달려 있다.

- *영 : 자연은 이미 많이 망가졌고, 지구온난화로 기후 문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연이 천천히 망가지도록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늦추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실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원 : 기술이 발전하여도 결국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이어도 결국 그 기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많은 자원과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기후 문제는 이미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초점을 뒤편에 두어야 하는 것은 해결이 아닌 늦추기일 것이다. 기술의 소비를 줄이고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환경과 공존할 궁리를 해야 할 것이다.

10. 책을 읽고 느낀 점

- *연 : <시간과 물에 대하여>는 단순한 환경서도, 과학서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남는 책이었다. 저자는 물, 시간, 언어라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통해 기후 위기와 인간의 존재에 대해 묻는다. 책을 읽는 내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빙하가 사라진 자리에 세운 추모비 문장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우리는 수치와 통계로 세상을 설명하려 하지만, 이 책은 감정과 언어, 이야기로 세상의 흐름을 잡아낸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 무감각해졌던 사람조차도 다시 느끼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느꼈다. 나도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자연을 다시 마주 보게 되었고, 나의 삶을 자연의 시간 속에 놓고 생각해보게 되었다.
- *영 : 어릴 때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그림을 그릴 때, 빙하가 녹아서 북극곰이 위험하다는 내용을 자주 그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는구나' 하고만 생각했지, 더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와는 크게 상관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니다. 하지만 시간과 물에 대하여를 읽고 나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슬란드의 역사와 자연에 대해 알게 되었고 특히 빙하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 이야기 같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빙하가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빙하가 녹는 일이 나와도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 살면서 환경 위기에 대해 많은 단어를 들으며 살았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인가,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탓인가 그리 대단한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현재 사람들이 환경

에 대해 알고 있어도 제대로 행동하려 하지 않고, 알지 못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비판한다. 책을 읽으면서,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아끼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당장 요란하게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특히 빙하를 중심으로 다루는데 빙하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존재인지 책을 읽고 처음 알았다. 모든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책이 아닌 이 책을 읽는다면 느낌과 비유로 풀어낸 어렵지 않은 자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11. 활동 사진

2025년 04월 30일

참가자대표 : 서*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환경탐험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05월 07일(수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타디움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서*연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신*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두 번째 지구는 없다 (타일러 라쉬)

1. 타일러는 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표현을 제목으로 선택했을까?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연 :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이사를 가면 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직을 하면 된다. 하지만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다른 행성으로 옮겨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표현은, 지구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우리의 자손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환경오염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느꼈다.
- *영 : 책을 읽다가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 언급되었는데,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어떤 생명체나 환경이 하나씩 사라졌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류가 생기기 전 상태로 지구가 되돌아가는 것도 무섭지만, 5억 4100만 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은 더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인간이 사라져야 지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뜻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지구는 하나뿐이고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원 : 우리가 현재 지구가 여분이 있는 것처럼 지구의 자원을 마구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후세대의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는 의미라고도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경각심을 주어 환경과 기후를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연 : “우리는 잘못을 퍼센티지로 따지면서 발을 빼고 싶어 하지만, 잘못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문제이다. 죄는 유무의 문제이며, 정도를 따지는 건 형을 선포할 때나 필요한 것이다.”라는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문장을 읽으며,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전

가하려는 태도에 익숙해져 있다는 걸 느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입는 옷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고, 핸드폰의 통신사는 한국이더라도 그 부품은 해외에서 제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거의 모든 물건들이 세계 곳곳과 연결되어 있고, 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역시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내가 직접 오염시킨 게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 *영 : 요즘은 유행에 따라 빠르게 옷을 만들어내는 '패스트 패션'이 많다고 한다. 길거리만 봐도 다들 비슷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요즘 사람들은 한 철 입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저렴한 옷을 사기 때문에 옷의 수명이 짧은 것 같다. 나는 조금 비싸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걸 선호해서 옷을 고를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런데 책에서 이 내용을 보고 나니, 내가 평소에 하던 이런 습관이 환경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원 : 저자가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읽고 안에 나오는 묘사에 읽기 힘들었다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보통 자연 파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추상적이거나 그리 상세하지 않은 결과를 말하는데, 이 책은 1도 썩 온도가 상승할 때의 환경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끔찍하게 적어놓았다. 6도가 상승하였을 때는 인류가 대멸종을 맞는다고 한다. 나도 너무 구체적이라 눈앞에 그려져서 기억에 남는다.

3. 타일러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를 중심에 뒀야 할까?

- *연 : 타일러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누리는 삶의 방식이 미래 세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바꾸는 것이다. 그는 일상 속 작은 소비 습관, 편리함을 추구하는 태도 속에도 환경을 파괴하는 요소가 숨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삶이 진짜 지속 가능성이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책임'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이 아닌,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사회와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느꼈다.
- *영 :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며 타인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지속 가능한 삶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사회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기업은 그 법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효율보다는 책임과 공존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모두가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원 : 현재의 우리 세대에만 만족하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아닌 미래 세대와 지구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되려면 우리는 인간의 질 높은 삶에만 치중하지 말고 지구를 오래도록 보듬어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후손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4. 지구 환경을 위한 변화는 개인의 실천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가?

- *연 :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타일러는 책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고 살아가는 일상이 사실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는 노력도 의미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업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정부가 그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구조적 변화다. 결국 개인의 실천과 사회의 변화는 함께 가야하며, 환경을 위한 진짜 변화는 '시민의 책임감'과 '사회 시스템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느꼈다.
- *영 :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기업이 함께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국민들도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작은 실천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원 :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분리수거를 하고 텀블러를 쓰는 것과 기업이 공장을 몇 분 돌리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개인보다 기업이 환경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정부가 환경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기업은 그것을 지켜 앞장서서 환경을 위하는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5.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각국마다 다른 것은 정당한가, 아니면 글로벌 표준이 필요할까?

- *연 : 기후 위기는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의 대응이 제각각이라면 효과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타일러는 책에서 우리가 이미 세계 곳곳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으며, 환경 문제 역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나라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도 규제가 느슨하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다른 나라에도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 정책에도 글로벌한 기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각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최소한의 공통된 책임과 목표는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연대와 협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 *영 : 글로벌 표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나라마다 서로 다른 표준을 따르다 보면 국제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나라는 고유한 환경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동일한 표준을 완벽하게 지키기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표준은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각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 : 각국은 위치도 다르고 자원도 다르다. 때문에 대응 정책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보다 더 아껴야 하는 자원이 있고 더 규제를 가해야 하는 사항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준이 아예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국가에게 같은 정책도 존재하여야 하지만 차별점은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6.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경제 성장을 포기하는 것이 정당한가?

- *연 : 타일러는 책에서 지금의 경제 성장이 미래를 파괴하면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가치인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성장을 기준으로 발전을 판단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자원 고갈이라는 대가를 치러왔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경제 성장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한 성장은 분명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성장'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방식의 전환과 조절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타일러의 말처럼, 앞으로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영 :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경제 성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방식을 채택하여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원 : 경제 성장을 포기한다면 그로 인한 실업자 발생과 수준의 침체로 경제를 넘어 국가의 발전을 불러올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무작정 포기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후 위기를 최대한 덜 초래하는 기술을 이용하거나 제한을 두어 기후 위기를 늦추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적절한 방안으로 보인다.

7.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은 개인, 기업, 정부 중 누가 가장 크게 져야 할까?

- *연 :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은 개인, 기업, 정부 모두에게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기업과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일러도 말했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긴 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인 기업의 과도한 자원 사용과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문제라고 봐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인도 책임이 있지만, 기업과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다. 기업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환경을 보호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영 :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먼저 행동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에 앞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 *원 :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이익 창출을 목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공장을 가동하고 자원을 사용한다. 개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자원 사용량이고, 정부와는 목표부터 다르다. 때문에 기후 위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책임 또한 기업에 더 치우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8. 청소년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할까?

- *연 : 청소년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타일러는 기후 위기를 단순히 미래의 문제로 두지 않고 현재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만 강조하는 교육은 청소년들이 무기력감을 느끼

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잃게 만들 수 있다. 타일러는 공포보다는 희망과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두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영 : 기후 변화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 지구가 직면한 위기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 :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환경 파괴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아직 생각이 확고하지 않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야 경각심을 느끼고 환경 보존에 대해 생각하고 노력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안일하게 바라본다면 환경을 아끼지도 않을 것이고 미래에 악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다.

9. 이 책을 통해 환경에 대한 나의 인식이나 태도에 변화가 있었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

- *연 : 이 책을 읽고 나서 환경에 대한 나의 인식과 태도가 많이 변화했다. 이전에는 기후 변화가 먼 미래의 이야기 같았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타일러는 기후 위기가 이미 우리 현실에 닥친 문제라고 말하며, 더 이상 미루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것처럼, 환경 문제는 단순히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깊숙이 연결된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 이제는 환경 문제를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타일러는 우리가 '두 번째 지구'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그 말이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 또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되었다.
- *영 :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저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며, 책에도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는 등 직접 실천하고 있다.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하지 않는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점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 *원 : 이 책은 환경보호를 극성이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무관심한 것에 대하여 비판한다. 다른 책들에서 말하는 환경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보다 환경보호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라는 이야기를 한다. 나도 시선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뼈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어 환경보호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 더욱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나중에 벌어질 일이라고 쉽게 보지 않고 우리가 망가트리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행동을 바꾸자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다.

10. 책을 읽고 느낀 점

- *연 : 이 책을 읽고 나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 전에는 기후 위기라는 말을 들어도 솔직히 실감이 잘 안 났고, 내가 뭘 바꾼다고 크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똑똑하게 짚어준다. 지금의 환경 문제는 단순히 지구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특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인상 깊었다. 누가 더 많이 오염시켰는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생각난다. 이 책을 통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가 반드시 중심에 두어야 할 가치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더 늦기 전에 삶의 기준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도 느꼈다.

물론 한 사람의 실천만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기 어렵겠지만, 그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야 구조도 바뀔 수 있다고 믿게 됐다. 이제는 소비를 할 때도, 습관을 돌아볼 때도 '이게 진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책이 내게 준 가장 큰 울림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다는 용기였다.

- *영 : 지금까지 읽은 책들은 한 가지 환경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었지만, 이 책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간단하게 다루기 때문에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저자의 다양한 예시 덕분에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또한 책 초반에 나오는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보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처럼 나도 직업을 먼저 떠올렸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꿈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더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점에서 생각이 바뀌었다. 어릴 때부터 꿈을 직업으로만 생각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꿈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줄어들었는데,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꿈의 의미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다.

- *월 : 우리의 당연한 일상이 지구를 잃어버리는 짓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다수가 환경보호에 대해서 나중 일인데 어떠한 태도를 가진다는데, 나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의 나만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고 우리가 망가트리거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미래 세대의 삶을 배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배웠다. 인간의 순간의 쾌락, 한 세대의 편리함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끔찍한 사실을 이 책을 읽고 나서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11. 활동 사진

2025년 05월 07일

참가자대표 : 서*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환경탐험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05월 13일(수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테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서*연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신*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지속 가능한 미래 (김우창)

1. 내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란 무엇일까?

- *연 : 내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란 단순히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남겨주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방식이 후세에게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멈춰서 고민해야한다. 현재 사회는 끝없이 발전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속도를 늦추고, 삶을 되돌아봐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느꼈다. 그저 여태처럼 편리함만을 쫓는 것처럼 나만의 삶이 아닌 '함께 사는 삶'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영 : 내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책과 제도를 통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삶의 편리함보다 모두가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 : 환경과 경제, 사회 세 요소가 서로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미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미래가 이루어지려면 어느 한 쪽만 발전하거나 그로 인하여 다른 요소가 저하되지 않으며, 미래 세대의 삶을 파괴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를 발전시키려면 경제가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환경 자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환경 자원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으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인간이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가 될 수 있을까?

- *연 : 이성은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해주지만, 감성이 없다면 그 문제를 '내 일'로 받아 들이지 못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에 대해 아무리 정확한 수치를 들어도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 반대로 감정에만 휘둘리게 된다면 순간의 불안이나 분노에 그칠 수 있다. 2023년에는 실제로 정부에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고 말하며 모네 작품에 페인트 테러를 한 기후활동가가 있었다. 이런 것처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만 행동해서는 안된다. 이성으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감정으로 공감하며, 두 개가 균형 있게 작동하는 태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영 : 인간이 이성과 감정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삶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한다. 감정에만 치우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성과 함께 균형 있게 생각할 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원 : 이성만이 앞선다면 자연을 사용하는데 죄책감이 들지 않을 것이고, 감성만이 앞선다면 기술 발전이 되지 않아 인간의 삶의 질이 너무나 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룬다면 자연도 배려하며 인간의 삶도 향상시키는 중립적인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모든 요소를 중요시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3. 책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단순한 자원으로만 보는 태도를 비판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일상에서 자연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 *연 :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는 자연을 그냥 있는 것으로만 바라본 적이 많았던 것 같다. 공원에 나무가 있는건 당연하고, 바다는 여름에 가는 곳, 가을에는 단풍을 보는 것처럼 자연은 늘 배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쓰레기 하나 버리고 플라스틱을 사용한 모든 순간들이 누군가에겐 피해가 되는 선택일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다. 이제는 자연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야 할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
- *영 : 나도 매일 보고 매일 접하는 자연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간다. 자연은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마 사라지겠느냐는 마음으로 지낸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자연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원 : 나도 자연을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무도 종이가 되고, 물도 우리가 먹고 씻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크게 생각하며 사는 듯 하다. 이러한 시선 말고는 가끔 삶에 지쳤을 때 치유를 받으려고 눈에 풍경을 담거나 상쾌한 냄새를 맡을 때도 있긴 하다. 그럴 때면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이 들어 한결 가벼워진다. 하지만 자원과 치유의 목적으로 보는 시선에서 배려하고 아끼려는 시선으로 변해야 할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었다.

4. 책에서는 생태계 파괴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사는 사회에서 '되돌아오는 결과'를 체감한 경험이 있을까?

- *연 :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미세먼지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이 점점 늘어났고, 기침과 눈 따가움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또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4월이 되어서도 눈이 내린 것을 보면서 기후 변화가 정말 심각해졌다는 것을 실감했다. 예전엔 이런 변화가 먼 나라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나의 건강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인간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 *영 : 집 뒤에 논과 밭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개구리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전에는 여름마다 개구리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잘 정도였지만, 요즘은 그 소리가 훨씬 작아졌다. 밭에서 자주 보이던 곤충들도 점점 보이지 않는다. 예전처럼 자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서인지,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 *원 : 인간이 만들어낸 미세먼지로 인하여 결국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등 건강에 치명적이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답답한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간다. 생활 속 이런 불편함까지 초래한다. 또한 생태계가 파괴되어 여름에 열대야가 발생하면 정말 죽을 듯한 통증을 느낀 적도 있다. 한여름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 가면 그렇다.

5.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의 변화와 제도의 변화 중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일까?

- *연 : 이상적인 것은 둘 다 함께 변화하는 것이지만, 꼭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나는 제도의 변화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실천해도 사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열심히 들고 다닌다고 해도, 카페에서 여전히 일회용 컵을 제공한다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제도가 먼저 방향을 잡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개인의 변화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영 : 제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환경에 맞게, 환경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사람들이 더 잘 실천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먼저 변화해야 개인의 행동과 의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원 : 개인보다는 제도의 변화가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개인이 노력을 한다고 한들 기업의 환경 파괴에 비할 바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규제를 가한다면 문제는 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인이 변화하는 것은, 언제 다시 되돌아 갈지도 모르며 미미한 정도의 변화일 것이기에 제도를 만드는 것이 기업을 단속하며 강제성이 부여되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6.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일까?

그렇다면 인간의 욕망과 환경 파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 *연 : 인간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건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욕망이 점점 커지면서 통제되지 않을 때 생긴다. 지금의 사회는 '소유'와 '속도'가 중요시되는 구조라, 무언가를 더 갖는 게 곧 성공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이 욕망이 끝없이 이어지면 결국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과도하게 소비하게 되고, 자연은 점점 파괴된다. 결국 인간의 욕망을 환경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사회는 이제 ‘얼마나 더 가졌는가’가 아닌 ‘얼마나 더 환경을 보호했는가’로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영 :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그런 양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공공재로 여기고, ‘자연만큼은 마음껏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 *원 :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욕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욕구를 제어하고 조절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욕망과 환경파괴는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많이 가지는 것은 돈이든 물건이든 만질 수 있는 것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러한 물체의 원재료는 거의 자연파괴를 거친다. 종이는 나무를 파괴하고 이는 동물의 서식지 등을 파괴한다. 이를 운송하는 것엔 온실가스 배출 등 생성부터 사용까지 끊임없는 자연 파괴를 일으킨다. 참으로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관계이다.

7. ‘지금 당장 편한 삶’과 ‘미래 세대의 삶’ 중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

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환경을 지켜야 할까?

- *연 : 이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내 편안함이 누군가에겐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래 세대는 우리가 만든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텀블러를 챙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소비를 줄이는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결코 작지 않은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 *영 : 나는 지금 당장의 편안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환경을 위한 행동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괜찮아야 비로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원 : 당연히 미래세대의 삶이다. 우리는 이미 편한 삶을 살고 있고 아마 우리 세대는 죽을 때까지 비슷한 삶을 살다 갈 것이다. 하지만 미래세대는 어떤 삶을 살지 모른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드느냐에 따라 미래세대는 아예 선택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인간 멸종이 늦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과거의 선조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힘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8. 내가 생각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렇다면 내가 미래를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 *연 :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가 어떤 세상을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깨끗한 물, 건강한 공기, 안정된 기후를 우리가 지켜내야만 그들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불편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에너지 절약, 물 절약, 분리수거, 중고 거래 활용하기 등이다. 나는 이번 달부터 온라인 쇼핑을 줄이고, 옛날부터 있었던 무지출데이(No Money Day)처럼 한 달에 하루는 아무것도 사지 않기로 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모이면 언젠가 큰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 *영 : 내가 생각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미래 세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며, 전기와 물을 아껴 쓰는 것이 있고, 텀블러 사용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미래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 *원 : 미래 세대가 편히 살아갈 보금자리를 남겨 주어야 하고, 미래 세대가 또 후 세대에게 전승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화와 의식을 남겨 주어야 하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미래 세대는 겪지 않도록 노력하여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분리수거 잘하기, 공정무역을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이 있다.

9. 책을 읽고 느낀 점

- *연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미래’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늘 미래를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과 태도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환경 문제만을 다룬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조금 더 가진 삶’이 아니라 ‘조금 덜 파괴한 삶’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진심으로 와닿았고, 이제는 나도 그 방향에 발을 들여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읽고 난 후 환경 보호가 내 일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환경 문제는 뉴스 속 이야기나 과학자들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매일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인상깊었다. 그리고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인간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내용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앞으로 나는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때 단지 효율성과 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속한 사회와 자연, 그리고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보려 한다. 이 책은 나에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무감을 일깨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었고, 작지만 실천 가능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줬다.
- *영 : 이번 책은 환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환경도 지키고 나라 경제도 좋아질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의 생각이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 *원 : 책을 읽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자연과 환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마다 추구하는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지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저자가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현대적인 주제에 대해서 플라톤이나 하이데거와 같은 옛 사상가들의 사상 또한 고려하여 현재의 문제와 접목시킨다는 것이 평범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환경에 관한 책을 읽을 때에는 환경에 깊이 관련된 내용만을 읽었는데 이 책은 환경을 포함한 정치, 문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고 있어 내용이 다양했고 새로 알게 되거나 생각해볼 점도 많았다.

10. 활동 사진

2025년 05월 13일

참가자대표 : 서*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환경탐험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05월 21일(수요일) / 장 소 : 도서관 4층 씨스퀘어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서*연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신*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파란하늘 빨간지구 (조천호)

1. 조천호 작가는 왜 환경 문제를 ‘빨간 지구’로 표현했을까요?

- *연 : 조천호 작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빨간 지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파란 하늘’은 우리가 기억하는 맑고 깨끗한 과거의 자연을 상징하고, ‘빨간 지구’는 산업화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심각하게 변해버린 현재의 지구를 나타낸다. 특히 빨간색은 위험, 경고, 열, 분노 등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색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느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산불과 폭염, 가뭄, 홍수같은 재난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빨간 지구’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작가는 단순히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감정적이고도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생각한다.
- *영 : 환경과 기후 오염에 대해 인간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빨간 지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빨간색은 위험과 경고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구가 지금 위험한 상태임을 알리고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원 : 인간이 지구 환경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온난화가 심화하고 있기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러한 지구 파괴로 인하여 지구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빨간색이라는 강렬한 색을 사용하여 경각심을 느끼게 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2. 이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내용은 무엇인가?

- *연 :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기후변화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미래 지구를 파탄 내는 길’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모든 화석연료 배출을 중단한다면 이는 ‘현재 삶을 파탄 내는 길’이다.”라는 부분이였다. 이 문장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일이 단순히

‘친환경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지구의 미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적으로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서 더 와닿았다. 이책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도피하거나 이상적으로만 보지 않고, 실제로 가능한 해결 지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담고있다. 모든 것을 당장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만 같았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이 문장이 책 전체의 문제의식을 압축하고 있는 문장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

- *영 : 평균 기온 상승이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지만, 지구온난화로 발생한 극한 날씨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는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평생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날씨로 인한 사망 사례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구온난화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원 : ‘이제 인류는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었다.’ 이 말처럼 현재 인류는 과거에 기후를 지내고 했던 것처럼 자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자연을 손아귀에 쥐고 쥐락펴락하는 생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말이다. 지금은 우리가 자연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었지만 서서히 이 관계는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구와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면 인간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떠나 인간이 지구에서 생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지 않을까?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무서움과 경각심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 말은 특히 기억에 남는다.

3.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일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까?

- *연 :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후위기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의 결과이며, 우리가 만들어온 문명 시스템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규모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방식, 식량 생산 구조까지 모두 기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반의 문제로 봐야한다.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는 현상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 안에는 무분별한 개발, 자원 남용, 불평등한 소비 구조 같은 더 깊은 문제가 숨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접근보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느꼈다.
- *영 :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날씨에 영향을 주면서, 점점 기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날씨의 변화는 눈에 띄게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 점점 더 뚜렷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

리는 환경 문제를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날씨와 기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

- *원 : 후변화는 단순히 날씨의 변화일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문제일까?

기후변화는 전혀 단순한 문제라고 바라볼 수 없는 인간 생존과 관련된 근본적이고도 중대한 문제이다. 인간이 현재까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고통에서 참패하지는 않아서 많은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가볍게 바라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식량 부족, 난민 발생,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등 인간의 목숨에까지 직접적인 악영향을 서서히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단순한 변화라고 계속 치부한다면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갈 날을 점점 더 줄이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한 시 빨리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 발생을 늦추려는 노력을 해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보금자리를 앗아가는 것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4. 책에서 산업화 이후 기후가 급격히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

- *연 : 나는 우리가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비가 오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쏟아지거나 4월달에도 눈이 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날씨를 겪고있다. 뉴스에서는 폭염, 가뭄, 산불같은 이상기후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일상 속에서도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이제는 더이상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단어도 특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 책을 읽고 나서야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날씨 변화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한 기후의 기복이 아니라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꼈다.

- *영 : 예전에는 동네에서 자주 보이던 곤충과 식물들이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어릴 때 숲속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곤충들도 사라진것 같고, 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던 지역은 공사가 진행되면서 건물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거리에서는 예전처럼 다양한 식물들을 보기 어려워진 것 같다.

- *원 : 책에서 산업화 이후 기후가 급격히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 내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동안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 뉴스에서는 해마다 역대 최고 더위나 추위라고 보도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는 급격한 기후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또한 내가 언제부터 봄과 가을은 존재하는 지도 모를 정도로 없어졌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언젠가부터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게 당연하단 듯이 얘기하고 있었다. 얇은 긴 팔 티셔츠보다 반팔이 더 많아지는 옷장을 보면서 십년 전의 내가 가졌던 계절별 옷들의 개수는 차이가 난지 오래된 것 같다고 느끼기도 한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시간이 흘러 봄과 가을의 옷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옷장을 보면 그때는 지구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깨닫

게 될까? 결국 기후변화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나중에는 늦추는 것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5.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상상해본 적 있는가?

- *연 : 아직은 어린 나이라서 '미래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느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게 결국 '우리의 가까운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후위기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의 미래 세대는 안전한 식량과 물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폭염과 재난으로부터 일상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살아갈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불안정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니, 그게 단지 먼 나라 이야기나 과장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기후 위기가 단지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한 삶과 권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는 '미래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영 : 내가 죽을 무렵이면 기후변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져 있을 것 같다. 지금도 상황이 심각하지만, 기후변화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생각에 그저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구나' 하고 넘겼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의 삶이 기후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원 : 기후변화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상상해본 적 있는가?
요즘 들어 우리가 망가트린 환경 속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의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우리의 후세대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극단적으로 치달은 지구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 그런 것 같다. 기후변화가 일어나 국가와 국가가 갈등이 생겨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망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모두가 암울한 시간을 보낼 것만 같은 상상이 그려진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미래 세대를 배려한다면 아마 미래 세대가 겪을 세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이 웃으며 살아갈 날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6.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기술 발전에만 의존하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연 : 기술 발전이 기후위기 해결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술에만 의존하려는 태도는 마치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 채 '뒤통수'만 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기후 위기는 인간의 소비 방식과 생활 구조, 가치관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보다 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기후 위기 해결은 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갈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기술은 도구일 뿐, 해결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영 :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발전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학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른다. 그래서 공학 기술이 기후위기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릴 필요가 있다. 뉴스에서 공학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는 소식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공학에 더 관심을 가지면 예산도 늘어날 것 같다.

- *원 :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기술도 결국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인데 어떻게 자연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언제까지나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후위기 해결을 늦추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할 생각이라면 기술에만 치중된 삶의 행동 방식을 벗어나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세대까지는 기후위기 문제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후세대는 우리가 박차를 가하고 망가진 환경에서 그대로 남겨질 것이기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의 현실이 아니라고 기술에 기대는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가 자제하고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7. '지구를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연 : 이 문장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은 '당연한 말이지만 자주 잊게 되는 진실'이라는 것이다. 지구와 인간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안에 묶여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모두 자연에서 오기 때문에, 지구가 망가지면 우리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환경 문제를 자기 일처럼 느끼지 못하고, '좋은 일 하듯이' 지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일이 결국 내 건강, 내 미래,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환경운동이 거창하거나 이상적인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자기 보호라는 점에서 이 문장은 꽤 강한 울림을 줬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문제를 대할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삶과 직결된 일'이라는 시각을 유지하려고 한다.
- *영 :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바로 지구이고, 지구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지만 지구를 공공재로 생각해서인지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는 뒤로 미루게 되고, 결국 지구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
- *원 : 백 번 천 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구에게 기대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지구를 우리가 아끼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구를 지켜주고 아껴줄까? 결국 지구를 내버려 두면 그 화살은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버려지고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 우린 그 물고기를 또 먹는다. 우리가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를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결국 지구와 우리는 한 몸이라고 여겨야 한다.

8.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생활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는가?

- *연 :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습관들이 사실 기후위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택배를 자주 시키는 습관이나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습관들이 자연스레 부끄러운 행동이라 느껴졌고, 또 전기를 아끼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들이 단순히 '절약'차원이 아닌 기후를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됐다. 사실 기후 문제는 너무 거대해서 내가 뭘 한다고 달라질까 싶었던 때도 있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는 개인의 작은 실천도 모이면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물론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영 : 요즘 날씨가 자주 변해 하루에도 비가 오다가 해가 나는 등 변화가 심하다. 갑자기 더워지기도 해서 날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감기에 걸리기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날씨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감기 예방을 위해 겉옷을 챙기고, 물을 많이 마시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볼려고 한다.
- *원 : 카페에 가서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서 플라스틱 빨대로 음료를 먹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제부터는 텀블러를 가져가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또한 자제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마구 배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배달 음식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시켜먹게 되더라도 배달 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해서 배출하자고 느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동을 해야 할 때에는 도보나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자고 생각하였다.

9. 이 책을 친구에게 추천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추천하고 싶은가?

- *연 : 이 책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과학 지식이나 환경 운동으로만 다루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그래서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는 친구에게도 '왜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일인지'를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친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는 이책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식으로 강요하지 않고, 같이 고민해야한다고 말해주는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기후 문제를 마냥 거창하게만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동시에 이 책은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우리 삶의 방향까지 묻고 있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영 :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이 책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 환경문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해볼수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원 : 현재 지구가 지나치게 파괴되고 있고 우리는 그 파괴를 일으키고 있는 존재로서 지구를 아끼자는 이야기를 하는 이 책을 읽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하는 바이다. 이 책은 아주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지구의 이야기를 해준다. 다양한 자료를 제

시하여 우리가 지구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근거를 이야기하고 지구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지구를 날마다 파괴 중인 모든 사람은 이 책을 읽을 이유가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0. 책을 읽고 느낀 점

- *연 : 나는 심비우스 북클럽을 진행하면서 이미 기후위기와 관련된 책을 여러권 읽어왔기 때문에, 이 책이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파란하늘 빨간지구>는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이나 사실들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어줘서, 이해가 더 쉬웠고 공감도 잘 됐다. 특히 기후 위기를 단순히 환경 파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연결해서 설명한 점이 인상 깊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이 왜 쉽게 끊기 힘든지, 기후 정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내용을 또렷하게 이해하게 해줬다. 책 전반에서 느껴지는 작가의 태도도 좋았는데, 독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하는 방식이 부담없이 책을 읽게 도와주었다. 기후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나조차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구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그래서 기후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 *영 : 『파란하늘 빨간지구』를 읽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나 정부, 기업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공학 기술 등을 통해 환경 문제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기술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 모두가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 *원 :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를 엄청나게 써왔지만 지구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으로 안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지구가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인간이 자연을 마구 쓰는 것은 결국 미래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지금부터 바로잡지 않는다면 영영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다. 또한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부터 인간이 지구에게 미치는 영향이 급속하게 커졌다는 것을 보고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현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긍정적일지 몰라도 지구에게는 자신을 파괴할 뿐인 재앙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은 지구를 단순히 잠깐 살다가 가는 행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미래 세대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무섭고도 안타까운 행성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11. 활동 사진

2025년 05월 21일

참가자대표 : 서*연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환경탐험대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5년 05월 28일(수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타디움							
참석자 명단	학번	2024****	이름	서*연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신*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롤루 밀러)

1. 우리는 자연을 ‘정리’하고 ‘분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간의 습관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까?

- *연 : 자연을 분류하고 정리하려는 습관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도감을 통해 동식물을 구분하고 이름 붙이는 과정은 자연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게 만들기도 한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기준에서 벗어난 생물은 틀린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은 경이로운 생명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이 통제해야 할 대상처럼 여겨진다. 결국 분류의 습관은 자연을 동등한 존재가 아닌 하위의 존재로 보게 만들고,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강화시킨다. 자연에 대한 존중이나 경외보다는, 관리와 활용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도 그 영향인 것 같다.
- *영 : 사람은 예전부터 무언가를 정리하려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동물이나 식물을 찾아서 정리하고, 도감을 만들어 왔다. 도감에 없는 생물이나 식물을 발견하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기뻐하고 그것을 특별한 일로 여긴다. 아마도 자연을 그냥 늘 곁에 있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싶은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 *원 : 자연으로 치유를 받고 자연과 공존한다는 느낌보단 딱딱하고, 인간의 삶에 이용하는 도구로써만 바라보게 될 것 같다. 때문에 자연을 배려하는 느낌보단 우리에게 자연을 맞추게 만들어서 결국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습관을 고친다면 자연과 인간이 동등하다 생각하며 자연의 파괴는 머지 않아 인간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통제하려고 했을 때 생기는 환경적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연 :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생태계의 불균형이다. 예를 들

어 개발을 위해 산을 깎거나 하천을 직선화하면, 그 안에 살던 생명체들이 갈 곳을 잃는다. 기후위기 역시 통제의 결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자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지만, 결국 그것이 자연의 순환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농업에서도 품종을 단일화하면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병충해에 한 번 취약해지면 전체가 무너질 위험이 생긴다. 자연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통제보다는 공존의 관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영 : 자연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면 자연은 점점 망가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결국 그것이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 *원 : 도시화로 인해서 숲과 들판이 사라지고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가 드러서면 햇빛으로 받은 열을 더 오래 흡수하게 된다. 때문에 도시 안의 온도가 도시가 아닌 곳보다 더 높아지고, 사람도 야외에서의 활동이 더욱 힘들어지며, 야외의 동물들도 생존이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로 결국 지구 온난화와 자연재해가 증가하게 된다.

3.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자연의 복잡함’이나 ‘예측 불가능성’은 우리의 환경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

- *연 : 자연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늘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의 질서도 사실은 인간이 만든 기준일 뿐, 실제 자연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복잡함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환경에 대한 대응도 단편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나 이상기후처럼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지금,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연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연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존재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 *영 : 우리는 자연을 더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인간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환경을 대할 때도 함부로 다루기보다는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 *원 : 환경을 무시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일회용품을 쓰고 많은 날을 자동차를 이용하며 살아간다. 아무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자연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 알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파괴 행위를 줄여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자연은 언제 순식간에 우리를 놓아버릴지 모르는 인간 멸망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 혼돈과 질서 중, 자연은 본래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울까?

그 자연스러움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

- *연 : 나는 자연이 본질적으로 혼돈에 더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일정한 주기로 계절이 바뀌고 생명이 자라는 질서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변화와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 혼돈을 억지로 질서화하려 하면서, 자연을 너무 단순한 틀로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자연의 다양성과 생명력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생물을 '관리'한다는 이름으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면 균형이 깨지기 쉽다. 자연스러움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인간 스스로에게도 위협이 된다. 자연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 *영 : 자연은 겉보기에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규칙과 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자연은 조화롭게 순환하며 잘 유지되고 있다. 만약 이 질서가 깨지면 식물과 동물의 멸종, 생태계 붕괴, 환경오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혼돈보다는 질서에 더 가까운 모습이며,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 : 언뜻 보기에는 혼돈과 질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자연을 망친 것을 봤을 때, 원래의 자연은 훨씬 질서정연하였다고 생각한다. 자연은 인간이 건드리지 않았을 때 알아서 우거지고, 다양한 개체가 공존을 하였던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자연스러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이 멸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인간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일이 왜 중요한가?

- *연 : 자연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면, 결국 자연은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인식된다. 그렇게 되면 보존보다 개발이 우선되고, 생명의 가치는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 없이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오히려 인간이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중심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을 동등한 생명체로 바라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환경을 다루는 방식도 훨씬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지배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자연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 *영 : 자연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익만 추구하고 필요한 것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흐르는 대로 살아간다면 자연은 훼손되지 않고 스스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 *원 : 인간을 중심으로, 즉 자연을 이용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자연은 모조리 파괴될 것이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연을 사용하고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을 있는 그대로의 환경으로 여기고 인간과 공존하는, 인간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자연 중심의 시선에서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자연을 중심으로 두어야 인간이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

6. 자연 속에서 가치 없는 존재는 없다. 그런데 왜 인간은 어떤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어떤 생명은 무시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여길까?

- *연 :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생명만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꿀벌은 꽃가루를 옮긴다는 이유로 보호하지만, 뱀이나 곤충은 해롭다고 여기며 없애려 한다. 하지만 생태계 속에서 각 생명은 고유한 역할을 한다. 특정 존재가 없어지면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넓게 퍼진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들의 관계를 생각하면,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의 시선으로만 판단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의 구성원 모두가 의미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환경 보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 *영 : 자연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먹이사슬 처럼 하나의 동물이나 곤충이 멸종하면, 그에 연결된 다른 생물들도 영향을 받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자연의 심리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쉽게 신경쓰지 않는다.
- *원 : 인간에게 해를 주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말라리아나 뱀과 같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에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진 것을 보았을 때, 동물의 외모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고양이나 강아지는 좋아하지만 벌레는 사람들이 쉽게 죽이는 것만 봐도 말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동물과 해를 가하는 동물을 분류하여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7. 이 책은 ‘모든 걸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비판한다.

우리가 자연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환경을 위해 중요한 태도일까?

- *연 : 자연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의 언어나 기준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생명체들의 집합이다. 알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겸손을 배우게 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그 생명 하나하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다. 그것이야말로 환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모르는 것을 틀린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환경을 더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영 : 우리가 자연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자연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일부는 인간의 지식 밖에 있으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분별한 개발이나 간섭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
- *원 : 자연을 다 알려고 한다면 그만큼 자연을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인간이 자연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을 쥐락펴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은 자연을 알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과 건드려도 될만한 것을 나눠 자연을 도구로

이용할 것이다. 이는 결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훗날 인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 알 수 없다고 생각해야 자연을 우습게 보지 않을 수 있고,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8. 생태계의 다양성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다양성이 환경에 주는 힘은 무엇일까?

- *연 : 생태계의 다양성은 곧 환경의 회복력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생명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연결되어 있기에,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도 다른 생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 단순한 구조일수록 외부의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반면,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는 위기 상황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인간은 때때로 이런 다양성을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자연은 그 복잡함 속에서 힘을 발휘한다. 다양성은 혼란이 아니라 유연성과 생존의 전략이자, 환경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다.
- *영 : 생태계의 다양성은 겉보기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자연을 지탱하는 균형과 질서가 숨어 있다. 다양한 생물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생태계를 유지하고, 변화나 위기가 닥쳤을 때 회복력을 높이는 힘이 된다. 또한 이 다양성은 공기 정화, 물 순환, 병해충 조절 같은 자연의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과 환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원 : 생태계의 여러 생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체가 내뿜고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환경에 닿아야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생태계가 균형을 맞추어 발전하며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생태계의 다양성이 환경에 주는 힘은 필수불가결하고 환경이 지속되는 힘을 준다고 본다.

9. 우리가 환경을 대할 때 꼭 바꿔야 할 ‘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책을 통해 그런 관점이 바뀌었다면 어떤 점인가?

- *연 : 환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건 ‘인간 중심’의 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 인간을 위한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인간이 중심이 아닌 수많은 생명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다시 깨달았다. 자연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아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모르는 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관계까지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환경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느꼈다.
- *영 :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연을 개발하고 소비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지만, 그런 관점은 결국 환경 파괴와 생태계 붕괴를 불러왔다. 이 책을 통해 다시한번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
- *원 : 책을 읽고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관점을 꼭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관점이 바뀌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자연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뒤엉켜 있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연을 알려고 욕심내는 것은 결국 자연을 완벽한 인간의 도구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라는 생각 또한 가지게 되었

다. 나도 원래는 자연을 알아야지 하는 마음이 컸지만, 책을 읽고 나니 그 관점 자체가 부적절하고 자연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뀌게 되었다.

10. 책을 읽고 느낀 점

- *연 : 이 책은 자연을 바라보는 내 시선을 바꿔준 책이었다. 그동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연을 분류하고 설명하려는 인간의 시도가 꼭 옳은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그 기준이 자연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이름 붙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질서 바깥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들이 환경을 배제하게 만든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이 책을 통해 환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라는 태도를 배우게 됐다.
- *영 : 처음 이 책을 읽을 때는 환경과 관련된 책인지, 자서전인지 헷갈렸다. 하지만 읽다 보니 데이비드에 대한 이야기와 환경에 대한 내용이 잘 어우러져 있어 인상 깊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물고기 표본을 모두 잃어버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모으는 장면이었다. 나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해낸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
- *월 : '물고기'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이라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책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지만 정말 그대로의 의미인 줄은 몰랐다. 또한 내가 살아 오면서 당연하다고 배우고, 당연하게 행해왔던 '질서'와 '분류'라는 개념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원래 없던 것에 이름 붙여 만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인 상식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마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믿어왔던 지식에 대해 의구심을 느끼게 하는 충격을 주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걸 안다는 태도를 버리고 자연에 대해 공존하자는 저자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뭐든지 아는 것은 좋다고 배웠는데,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다. 하지만 저자의 말은 타당한 말 같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안다는 것이 전부 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자연은 알려고 할수록 힘들어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11. 활동 사진

2025년 05월 28일

참가자대표 : 서*연